

## 다산 역학(易學)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적 해석

엄국화 (남서울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는 말
- II. 기독교 윤리의 정초, 상제(上帝)에 대한 경외(敬畏): 동인(同人), 송(訟)
- III. 기독교 윤리의 모범 - 그리스도의 겸손(謙)과 성육신(臨)
- IV. 기독교 윤리의 실천, 추서(推恕)와 공감: 비(比), 몽(蒙)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5>

---

\* goocaa79@gmail.com

---

• ABSTRACT •

---

##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 in Tasan's I-Ching

Lecturer, Uhm Kook-hwa(Namseoul Univ., Lector)

Dasan defined 『Jooyeok』 as a 'hoegwajiseo(悔過之書)', that is, 'Book of repentance'. This research focuses on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s revealed in the Dasan's commentary, rather than dealing with the fortunes of the "Jooyeok" of "hoe" related to the Dasan's explanation related to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 The range is from the first Geon(乾) of 64 divinations to the 30th of Li(離), and six of them are examined. Chapter 2 deals with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Dasan's "Sangje(上帝)" in the interpretation of Dongin(同人) and Song(訟), in terms of the deity-consciousness that i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ethics. Chapter 3 deals with the humility and incarnation of Christ, which is the epitome of Christian ethics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Gyeom(謙) and Lim(臨). Chapter 4 deals with the Christian practical ethics present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Bi(比) and the Mong(蒙).

**Key words:** Dasan Jeong Yakyong, Jooyeok, Sangje, Humility, Chooseo(推恕), Empathy

---

## I. 들어가는 말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주역(周易)』에 대해 ‘회개[悔過]의 책’이라고 단언한다.<sup>1)</sup> 『주역』에 대한 해석은 크게 의리학(義理學)과 상수학(象數學)으로 나누어지는데, 의리학은 『주역』을 철학 또는 윤리학적 해석을 중시하는 반면, 상수학은 말 그대로 이미지(image)와 수(number)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해석 체계이다. 다산은 『주역』과 관련하여 『주역사전(周易四箋)』, 『역학서언(易學緒言)』이라는 두 저서를 남겼는데, 먼저 저술한 『주역사전』은 『주역』을 상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각 괘효사를 해석한다. 이러한 이유로 다산 역학(易學)에 대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다산역을 상수학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주역사전』은 상수학적인 해석 방법들 위주로 소개되어 있고, 괘효사에 대한 해석도 상수학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다산의 『주역사전』이 상수학에 기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인상이 강한 것뿐이지, 오히려 적은 부분이지만 곳곳에 나타나는 『주역사전』 의리학적 해석들은 다산을 의리학자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다산의 건(乾)괘 3효에 대한 해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점사(占辭)로써 점을 치는 경우에, 일반적인 출처진퇴(出處進退)나, 제사·혼인·전쟁 등의 일에 있어서는, 모두 전혀 해당되는 바가 없다. 주공(周公)이 효사(爻辭)를 지을 당초에, 아마도 역을 배우는 자들이 오로지 복서(卜筮)를 위주로 할까 우려하여, 특별히 건(乾)괘의 내부에 이 점사를 삼입하여,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역의 활용처가 복서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주역』을 해석함에 대부분 ‘의리’에 입각하여 해

1) 『茶山詩文集』 13권, 「每心齋記」, “周易悔過之書也.”

석하였던 것이니 그것은 문왕과 주공에 근원을 갖고 있는 것이지, 공자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sup>2)</sup>

다산은 건괘를 3호를 해설하면서, ‘의리학적 해석’이 공자 이전 문왕부터 연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주역사전』에는 상수학 위주의 해설들이 기술되고 있지만, 간혹 상수학과 거리가 먼 해석들이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간혹 보이는 의리학적 해석 중에서도 기독교 윤리적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들만 더욱 드러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다산이 『주역』을 미신에 불과한 점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철학서, 윤리서로 복원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천주교 박해로 유배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한 저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주역사전』에는 젊은 시절 다산이 침잠했었던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산발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특별히 여기서는 기독교 윤리적인 요소들을 다루고자 한다.

『주역』의 주요 점사(占辭)는 ‘길흉(吉凶)’과 ‘회린(悔吝)’같은 것들인데, 『주역사전』의 의리학적인 요소는 특별히 ‘회린’과 관련된 종교성과 윤리성에 기인한다. 다산은 『주역』을 ‘회과지서(悔過之書)’ 즉, ‘회개의 책’으로 규정했는데, 여기서는 ‘회(悔)’라는 『주역』의 점사보다는 다산의 해설 가운데 드러나는 기독교 윤리적 해석들을 다룬다. 가급적 상수학적 해석 방법은 생략하고 기독교 윤리적 해석과 관련된 다산의 해설 위주로 소개할 것이다. 그 범위는 64괘의 첫 번째 건괘부터 30번째 리(離)괘까지 해당하고, 그중 여섯 개의 괘를 중심으로 살핀다.

2) 『周易四箋』, 「乾」, 〈九三〉, “此繇 以之爲筮 則於出處進退 祭祀 婚姻 戰伐之等 皆無所當 周公撰詞之初 蓋恐學易者 專主卜筮 特於乾卦之內 插此一繇 使學者 知易之爲用 不止於卜筮也 故孔子解易 多主義理 《象傳 大象傳》 其源出於文王周公 非自孔子始也.” 『周易四箋』의 번역문은 모두 방인, 장정욱의 『역주 주역사전』(2007, 소명출판)을 인용했다.

2장에서는 기독교윤리의 정초가 되는 신(神) 의식과 관련하여 동인(同人)괘와 송(訟)괘의 해석에 나타난 다산의 '상제(上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룬다. 3장에서는 겸(謙)괘와 림(臨)괘를 해석을 통해 기독교윤리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육신을 다룬다. 4장에서는 비(比)괘와 몽(蒙)괘의 해석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를 다룬다.

## II. 기독교 윤리의 정초, 상제(上帝)에 대한 경외(敬畏):

### 동인(同人), 송(訟)

『천로역정(天路歷程)』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했던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 奇一) 선교사는 마지막 글을 『코리아미션필드 *Korea Mission Field*』를 통해 발표했는데, 제목은 “『주역』과 성경의 합류”이다. 부제목은 “이인동심 기리단금과 마태복음 18장 19절”이라고 달려 있는데,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은 『주역』의 열세 번째 괘인 동인(同人, ䷌)괘 5효에 대한 「계사전(繫辭傳)」의 해설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동인괘 5효 효사(爻辭)는 “남과 함께 하되 먼저는 울부짖다가 나중에는 웃으니[先號咷而後笑], 큰 병력으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大師克 相遇].”라는 문장인데,<sup>3)</sup> 이 중에서 상반절 ‘선호도이후소(先號咷而後笑)’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주역』 「계사전」 상(上) 8장에서 이에 대해 “군자(君子)의 도(道)가 혹은 나아가고 혹은 처하며, 혹은 침묵하고 혹은 말하나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날카로움이 금(金)을 절단한다. 마음을 함께 하는 말은 그 향기로움이 난초와 같다.”<sup>4)</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3) 『周易』, 「同人」, 〈九五〉, “同人, 先號咷而後笑, 大師克, 相遇.” 『周易』의 원문은 〈한국주역대전DB〉에서 인용하였다.

여기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날카로움이 금을 절단한다.”는 의미를 담은 문장이 ‘이인동심 기리단금’인데, 계일은 『주역』 「계사전」의 이 문장을 성경과 연결시킨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문장(이인동심 기리단금)은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기만 하면 경이로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며 계일 선교사의 마지막 기고문에 등장한 동인패를 소개하는 것은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계일이 한국어로 발표한 마지막 글에서 성경과 『주역』을 연결하며 동인패를 소개한 것과 연관지어 다산의 『주역사전』에서 주목할 것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상제(上帝)’가 등장하는 패가 동인패라는 사실이다.

다산의 저서 중 ‘상제’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은 『중용(中庸)』의 해설서들이다. 『중용』에 대한 해설서로 『중용자잠(中庸自箴)』과, 『중용강의(中庸講義)』가 있는데, 『중용강의』는 다산이 초계문신(抄啟文臣)으로 발탁된 다음, 정조에게 받은 『중용』에 대한 80여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 만들었던 답안지가 원자료이다. 정조에게 과제를 받고 다산은 광암 이벽(李穰, 1754~1785)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만들어진 책이 『중용강의』이다. 이벽은 초기 조선천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

4) 『周易』, 「繫辭傳」 上 8장, “君子之道, 或出或處或默或語,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5) 유영식, 『(책한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서울, 진흥, 2013) 상, 251.

물이었기 때문에, 이벽과 했던 과제수행에는 서학(西學)의 영향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정조도 다산의 연구결과에 참신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학의 영향으로 작성된 『중용강의』에서 다산은 ‘소사상제(昭事上帝; 상제를 밝게 섬김)’를 언급한다.<sup>6)</sup>

이후 저술 작업은 유배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배기라는 상황에서 다산은 ‘소사상제’ 또는 ‘사상제(事上帝; 상제를 섬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기존의 성리학 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천(事天; 하늘을 섬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산이 『주역』에 대한 해설서에서 ‘상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일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상제’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선호도이후소”라는 문장과 「계사전」의 이에 대한 해설 “이인동심 기리단금”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다산도 『주역사전』에서 동인괘와 5호에 대한 해설에서 「계사전」 상 8장을 인용하지만, 상수학적인 논의를 하고 있을 뿐, 의리학적으로 진전된 해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산의 동인괘 해석에서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동인(同人)’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다.

다산은 먼저, ‘동인’에 대한 「서괘전(序卦傳)」,<sup>7)</sup> 「잡괘전(雜卦傳)」<sup>8)</sup> 그리고 정이천(程伊川)의 해설<sup>9)</sup>을 소개한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동(同)이란 모이는 것이며, 만나보는 것이다.”<sup>10)</sup>라고 ‘동’에 있는 ‘회(會)’와 ‘견(見)’

6) 『國譯與猶堂全書』, 經集 I,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p.308, “천지귀신이란 바깥에 널려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은 것은 상제이시다. 문왕의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밝게 상제를 섬겼던 일과 〈중용〉에서의 계산공구는 이 어찌 밝은 마음으로 섬기는 학문[昭事之學]이 아니겠는가?(天地鬼神, 昭布森列, 而其至尊至大者, 上帝是已, 文王小心翼翼, 昭事上帝, 中庸之戒愼恐懼, 豈非昭事之學乎.)”

7) 『周易』, 「序卦傳」, “與人同者, 物必歸焉.”

8) 『周易』, 「雜卦傳」, “同人, 親也.”

9) 『周易傳義大全』, 「同人」, “天在上者也, 火之性炎上, 與天同也.”

10) 『周易四箋』, 「同人」, “同者, 會也, 見也.”

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고 ‘회합(會合)’의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다.

성인(聖人)이 사람들을 ‘모여서 만나게 함(會合)’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일가(一家)의 기뻐하는 마음을 모아 돌아가신 할아버지(祖考)를 모시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天下의 즐거워하는 마음을 모아 상제(上帝)를 모시게 하는 것이니, [會合의 방식은 단지 이와 같을 따름이다.<sup>11)</sup>

다산은 ‘동인’의 의미를 설명하며, 첫 번째는 ‘가족의 모임’, 두 번째는 ‘종교적 모임’으로 풀이하는데, ‘종교적 모임’에서 ‘사상제(事上帝)’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산 이전의 조선 유학자 중에는 동인괘를 설명하면서 ‘상제’를 언급한 학자는 거의 없다.<sup>12)</sup> 『주역』 자체에도 ‘상제’라는 글자는 단 한 번 등장하는데, 예(豫)괘의 상전(象傳)과 정(鼎)괘의 단전(象傳)에 나온다. ‘제(帝)’라는 한 글자로는 나타나지만, ‘상제’라는 두 글자로 명시된 것은 『주역』의 경문(經文)에 나타나지 않는다.

‘동인’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임은 가족들이 조상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과 상제를 섬기기 위해 모이는 것, 두 가지뿐이라고 단정한다. ‘상제’라는 단어는 『주역』 경문에도 잘 나오지 않고, 『주역 전의(周易傳義)』에도 드물게 나오는 편이고, 조선 유학자들도 동인괘 해석에서 ‘상제’를 언급한 경우가 없는데, 다산은 동인괘 해설에서 ‘상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주역』이라는 책이 단순한 복서가 아니라, 의리서(義理書) 즉, 윤리에 관한 책이라고 할 때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단순히 길흉화

11) 『周易四箋』, 「同人」, “聖人之會合人類, 厥有二道. 得一家之歡心, 以事祖考, 得天下之歡心, 以事上帝, 如斯而已.”

12) 한국주역대전DB에서 전체 연구성과를 검색한 결과 ‘상제’는 33건만 나타난다. ‘동인괘’에서 ‘상제’는 검색되지 않는다.

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그 기반이 ‘상제’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윤리의 기반으로 ‘상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주역사전』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만한 것은 ‘상제에 대한 태도’, ‘경외(敬畏)하는 것이다. 다산은 『중용강의』에서 ‘소사상제(昭事上帝)가 ‘중용’의 공부법이라고 단언하는데, 이것은 아직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기 전,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내세웠던 주장이다. 천주교 박해와 그로 인한 유배 이후 다산은 ‘상제’라는 말보다는 ‘하늘[天]’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하늘’은 자연에 속한 ‘하늘’이 아니라, 기독교의 ‘여호와’와 같은 인격신 개념으로 즉, ‘상제’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래서 다산은 자연의 대상으로 ‘하늘’이 아니라, 세계의 주관자로 ‘하늘과 그 하늘이 내리는 명령, ‘천명’을 경외해야 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동인괘에 언급된 ‘천명을 경외한다’는 말은 여섯 번째 송괘(訟, ䷅)에서 나타난다. 송괘의 ‘송’에 대해서는 ‘친하지 않음(不親)’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소개한 ‘동인’과 반대의 의미다. ‘동인’에 대해 「잡괘전」에서는 ‘친(親)’으로 풀이했는데, ‘송’은 ‘송사(訟事)’가 벌어진 이유를 ‘친’하지 못함에서 찾고 있다. 다산의 송괘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송괘는 돈(遯)괘로부터 왔으니 돈괘의 때에는 리위(離位)의 한 가운데가 비어 있어 위로 천명을 경외하니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추이(推移)하여 송괘로 되면 감(坎)의 강(剛)으로 중(中)을 채우고 공경함으로써 안(內)을 바르게 하니 《天命을 공경함》 [이것을 가리켜] “질척중(窒惕中), 즉 “성실한 마음을 가득 채워 두려워 함”이라고 한 것이다. ‘질(窒)’은 ‘가득참(實)’을 뜻하니, 마음을 誠實함으로 채워, 하늘을 공경하니, 그 몫이 길한 것이다.<sup>13)</sup>

13) 『周易四箋』, 「訟」, “又自遯來. 二之三 遯之時. 離位虛中. 一三二 上畏天命. 互巽命其心惕也. 移之爲訟. 二之三 則坎剛中實. 下今坎 敬以直內. 敬天命 窒惕中也. 坎爲

송과에 대한 다산의 상수학적인 설명이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명을 경외함[畏天命]’과 ‘천명의 공경함[敬天命]’과 ‘하늘을 공경함[敬天]’과 같은 표현이다. ‘천명’이라는 단어는 『중용』의 첫 문장 “천명지위성”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그 ‘천명’에 대해 ‘두려움[畏]’과 ‘공경함[敬]’을 연달아 서술하는 것은, ‘천명’에 대한 성리학적인 태도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경천’과 연관지어보면, 기독교적 인격신에 대한 태도라는 인상이 강한 것도 사실이다.

### III. 기독교 윤리의 모범 - 그리스도의 겸손[謙]과 성육신[臨]

16세기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보유론(補儒論)’적 입장이나, ‘색은주의(索隱主義)’ 사상의 기반에는 『주역』이 있다. ‘유학의 종교적인 영역을 기독교가 채울 수 있다’라는 보유론이나, ‘이미 고대부터 원시 기독교적인 사상이 중국에 있었다’라는 색은주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주역』에 대해 논하지 않고는 그 주장을 펼칠 수가 없다. 『주역』은 복서(卜筮)의 책으로 시작되었고, 유교의 다른 경전보다 차원이 다른 종교성을 띠고 있다. 송대(宋代)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의리역에 와서는 복서의 성격보다는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성격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주역』은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경전이였다.

『주역』을 현대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이정용 역시 『역과 기독교 사상』에서 『주역』과 기독교를 연결하면서, 그 연결고리로서 겸(謙)괘를 주목한다. 기독교 윤리의 전형,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해할 때, 『주역』의 겸괘만큼 적합한 괘도 없을 것이다.

穴. 其中剛爲室. 室者實也. 實心以敬天. 其占吉也.”

소박하고 단순한 자이는 겸손한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 겸양은 易의 성향이다. 흐르는 물과 같이 易은 보다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른다. 물은 결코 위를 향해 흐르지 않는다. 이처럼 易은 오만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의 오만은 易의 자연스러운 진전을 정지시키는 요새와 같다. 교만의 벽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킨다. 겸손한 사람은 易의 모든 가능성을 향하여 열려있다. 겸양은 스스로를 자연의 진전애다 내어 맡기는 태도이다. 즉 그것은 자기의 비자연적 성향을 포기하고 되어감의 과정 속에서 기꺼이 살고자 하는 태도이다. 겸손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연과 화해시킨다. 易은 그 속에서 즐거이 자신을 보여준다. 겸손 속에서 예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겸손 속에서 인간은 높이 들리워 올려진다. 易은 태도가 겸손한 인간의 외로움 속으로 움직여 들어가기 때문이다.<sup>14)</sup>

겸양을 ‘흐르는 물’에 비유한 것이나, ‘자연으로부터의 소외’, 또는 ‘자연과 화해’ 등의 언급은 노자(老子)적 해석에 가깝게 보일 수 있지만, 이정용은 역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결부시키고 있다. 『주역』의 열다섯 번째 괘 ‘겸(謙, ䷎)’괘는 조선조 유학자들이 선호하였던 괘이기도 하다. 겸괘의 덕을 선호하는 것은 유학자들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군주 또는 권력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다산도 여느 유학자들과 비슷한 해석을 취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이] 착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올바른 道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재난을 내리는 이치는 비록 멀고 아득하여, 분명치 않은 이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가득 찬 것이 덜어냄을 초래하고, 겸손한 자가 보탬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자만심(自慢心)으로] 가득 찬 자는 반드시 망하게 하고, 겸손한 자는 반드시 존귀해 지는 법이니,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사람들이 그를 낮춰 버리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사람들이

14) 이정용, 정진홍 역, 『역과 기독교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41.

그를 떠받들게 된다.<sup>15)</sup>

검괘에 나타난 이와 같은 윤리적인 해석은 『주역사전』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 수 밖에 없다. 앞부분에 하늘에 대하여 ‘복을 내리고 재난을 내리는’ 인격신으로 상정한 것은 특히나 다른 점이다. 조선 유학자들은 ‘하늘’을 ‘이치’와 동격으로 생각했는데, 다산은 하늘 자체가 이치가 아니라, 하늘이 하는 ‘인격적인 행위’를 이치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스스로 높이는 자는 사람들이 낮춰 버리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들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겸손을 강조했던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연상시킨다.<sup>16)</sup>

구약 성경에서도 ‘겸손’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겸손은 여호와와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의미하기도 했고, 다윗이 죄를 깨닫고 바로 자백했던 회개를 뜻하기도 했다. 부자 관계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들 이삭과 같이 자식의 도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약적 의미에서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는 겸손 그 자체이다.<sup>17)</sup>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서 절정에

---

15) 『周易四箋』, 「謙」, “雖若悠悠而不明. 滿招損謙受益. 可謂顯矣. 盈則必亡. 謙則必尊. 自上者人下之. 自下者人上之. 書云時日害喪. 予及女偕亡. 盈則必亡也. 詩云湯降不遲. 聖敬日躋. 謙則必尊也. 降下人也. 不遲. 猶言謙輕也. 謙之時義. 顯不大矣哉.”

16)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4: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8: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7)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 21: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르지만, 성육신 자체가 이미 겸손의 행위였다.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는 강림(降臨)이 겸손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언급은 신후담(신후담(愼後聃, 1702~1761) 『서학변(西學辨)』에서 앞서 등장했다.

저들은 일찍이 “하늘이 (운행하는) 도수(度數)는 각기 그 법칙에 의거하며 하늘이 머무는 바도 각각 그 위치에 편안하여 조금의 어긋남도 없는 것은 천주가 하늘을 주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천주가 하루라도 하늘을 떠날 수 없음을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은 곧 인간 세상에 강성한 지 33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이 33년 동안 하늘은 주재자가 없는 한가로운 물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늘이 머무는 바와 (운행)의 도수에 조금도 어긋날 염려가 없을 수 있겠는가?<sup>18)</sup>

신후담은 이익(李瀾, 1629~1690)의 문인 중에서 공서파(攻西派)에 속한 인물로 『서학변』에서 『영언여작(靈言蠹勺)』, 『천주실의(天主實義)』, 『직방외기(職方外紀)』라는 세 편의 서학서(西學書)를 비판하는데, 천주의 강생에 대한 의심은 『천주실의』에 대한 비판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다산 역시 『천주실의』를 비롯한 여러 서학서를 접했기 때문에, 천주의 강생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을 것이다. 천주의 강생과 가장 연관성 있는 림(臨)괘에 대한 다산의 해석에서 역시 그리스도의 겸손을 연상하게 된다.

림(臨)은 연못에 임하는 것이다. 태(兌)의 연못이 매우 깊어, 곤(坤)의 백성이 굽어보니, 이것을 ‘림’이라고 한다. 또 림은 진(震)의 군주가 곤의 나라에 군림(君臨)하는 것이다. …… 림괘가 되면 천하의 중심에 서서 만백성에게 이

18) 신후담, 김선희 옮김, 『신후담의 돈와서학변』(서울, 사람의무늬, 2014), 163.

르러, 군주가 되니 이것을 립이라 하는 것이다. …… 그런데 존귀한 신분으로 비천한 자의 밑에 있는데, 어찌 군림함이 된다는 것인가? [그것은 성인이 백성들 앞에 임할 때에는 [오히려] 겸손하고 [백성을] 섬기며, 자신을 낮추며 굽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공자가 이 립괘에 대해서 “군자는 이 립괘의 취지를 본받아, 가르치고자 하는 생각이 무궁하고, 백성을 포용함에 한계가 없다”라고 하였거니와,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낮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감이 이와 같다. 성인이 괘를 명명(命名)한 취지가 그 어찌 깊다고 아니 하겠는가!<sup>19)</sup>

원문에는 상수학적인 설명이 섞여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인용하였는데, 『주역사전』이 상수학 위주로 되어있어 오히려 인용문과 같은 윤리적 해석이 더욱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립괘의 윤리적 해석은 단순히 통치자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겸괘와 연관지어서 그리스도라는 ‘통치자’의 겸손의 모범으로, 립괘를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림(臨, ䷒)괘는 『주역』 열이홉 번째 괘로 12벽괘 중 하나인 중요한 괘이다. 12벽괘라는 것은 12달과 같이 64괘 중에서도 대표적인 괘이다. 나머지 괘들은 이 12벽괘의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12벽괘는 각 영역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립괘는 통치자의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의 통치자(王)이라는 직분을 가진

19) 『周易四箋』, 「臨」, “臨者 臨淵也 兌澤極深 坤民俯臨 是之謂 臨也 又 臨者 震主 臨坤國也 復之一陽 首 出庶物 而其位最卑 未有臨民之象 進而爲臨 則中天下而立 《二爲坤之中》 莅萬民而爲君 此之謂 臨也 然 臨者 大震也 《兼畫三》 震之爲卦 以剛而下柔 以尊而降卑 何以爲臨也 聖 人之臨民也 謙恭而卑屈也. 書曰 以左右有民 詩曰 湯降不遲 皆 所以下於民也 後世 君道太亢 不知下民之義 則驕溢泰 侈 而失其所以爲臨也 孔子 於此卦 曰 君子 以教思無窮 容保民 无疆 臨民之必以卑降 如是也 聖人名卦之義 其不淵矣哉.”

그리스도의 가장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다.

#### IV. 기독교 윤리의 실천, 추서(推恕)와 공감 : 비(比), 몽(蒙)

III장에서 『주역』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기독교 최고의 윤리강령의 실천적인 모범으로 두 개의 괘를 다루고자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이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자관계를 비롯한 가족관계가 시작된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이전 두 남녀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이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구약성경에서 부부관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물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결과적으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부부관계의 건강한 관계를 명령하는 율법 조항들도 있고,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잠언도 구약성경에 곳곳에 등장한다. 건강한 부부관계에 대해 더욱 강조하는 것은 신약의 서신서들이다. 바울서신이든 일반서신이든 복음에 대한 강론이 마치고, 실천적인 윤리적 지침을 전달할 때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항상 언급이 된다.

유교 문화권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는 늘 강조되어 왔다. 『맹자』에 나오는 오륜(五倫)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다. 이 ‘오륜’에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이 포함되어 있어 부부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부부유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먼저는, 부부관계 ‘안에서’ 구별로서, 남

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역할을 구분했던 전통에 기인한 것인데, 조선조에는 이미 이것과 다른 해석의 전통이 형성되었다.

‘남녀의 구별’과 같은 의미에서 ‘부부의 구별’이 아닌, ‘부부유별’에 대한 다른 해석의 전통은 여러 학자들에게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성호 이익은 부부관계 ‘바깥에서’의 구별로서, 자기의 배필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부부유별은 사람마다 각기 정해진 짝이 있어서 서로 더럽히거나 어지러움이 없음을 일컫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식의 정해짐이 없다. 그러므로 부부에 분별이 있는 이후에 아버지와 자식이 친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sup>20)</sup>

성호가 주장하는 부부유별의 의미는 곧, 자기의 배필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이다. 성호의 해석을 계승하는 다산은 비(比)괘에 대한 해설에서 ‘부부’에 관련해 다음 설명을 보여준다.

비(比)괘의 양호괘(兩互卦)는 박(剝)괘가 된다. 자기의 배필(配匹)이 아닌 데도 친하니 “후부(後夫) 흉(凶)”이라고 한 것이다. 비(比)는 짝함(媾)이다. 친하고 따르는 것이 지나치면, 그 가법(家法)을 잃게 되어 마침내 음란(淫亂)함으로써 혼미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비(比, ䷇)괘의 괘사<sup>22)</sup>에 ‘후부(後夫)’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20) 李瀼, 『小學疾書』, “夫婦有別者 謂人各有定配 無相瀆亂 不然則父子靡定 故曰 夫婦別而後父子親也.”

21) 『周易四箋』, 「比」, “比之兩互, 其卦剝也. 比匪其匹, 【艮之配兌也】 後夫凶也. 比者, 媾也. 暱比之至, 失其家法, 【互卦無上坎】 終以淫迷.”

22) 『周易』, 「比」, “比, 吉, 原筮, 元永貞, 无咎. 不寧, 方來, 後, 夫, 凶.”

다산은 ‘자기의 배필이 아닌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부(夫)에 대하여 ‘대장부(大丈夫)’로 해석한 정이천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이다.<sup>23)</sup> 정이천은 비괘 자체를 ‘친밀한 보좌’를 나타내는 괘로 이해했는데,<sup>24)</sup> 다산은 ‘친밀한 보좌’를 ‘부부의 관계’로 더 좁게 이해한 것이다. 여기서 ‘후부’라는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와는 반대 의미이다. 다산은 성호의 해석을 계승하여 ‘부부유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부가 분별이 있다는 것은 각자가 그 짝을 배필로 삼고 서로 남의 배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분별이 있는 뒤에 부자가 친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창부의 자식은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가령 부부간에 분별은 없고 다만 서로 공경하여 손님처럼 대하기만 한다면 부자의 친함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경전 가운데에 부부유별(夫婦有別)에 대한 증거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sup>25)</sup>

그러나 다산의 ‘부부유별’의 해석의 중요한 특징은 ‘서(愆)’에 있다. 서는 『논어』에서 ‘충서(忠恕)’와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라는 의미를 가진 문자로 등장하고, 『중용』에서도 ‘충서’라는 두 글자로, 『대학』에서 ‘서’라는 한 글자로 등장한다. 다산은 사서 모두가 ‘서’에 대한 해설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sup>26)</sup> 하지만 ‘서’는 『주역』 경문이나, 조선

23) 『周易傳義』, “편안하지 못할 때를 당해서는 진실로 마땅히 급하고 급하게 친하여 돕는 바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홀로 서서 자신만을 믿어 돕기를 구하는 뜻을 빨리 하지 않고 뒤에 하면[後] 비록 장부[夫]라도 흉하다.”

24) 정이천, 심의용 역, 『周易』(과주, 글항아리, 2015).

25) 『與猶堂全書』 「示兩兒」, “夫婦有別者, 各配其耦而不相侵越也. 故曰夫婦別而後父子親. 娼黷之子. 不知其父也. 若云敬. 相待如賓. 於父子親何與. 經典中有別之證. 不可勝數.”

26) 이지형 역,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서울, 사암, 2010), 461, “하나의 서(愆)를 잡고서 『논어』·『중용』·『대학』·『맹자』에 임할 때 그 천만 마디 말들이 이 하나의 서(愆)자의 풀이 아닌 것이 없다. 공자의 도는 참으로 이 하나의 서일 따름이니, 여기에

시대에 일반적으로 읽혔던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이천(程伊川) 『역전(易傳)』의 비(比)괘에 대한 해설에서 한 번 등장하지만 주요한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

『주역사전』에도 ‘서’는 단 한 번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사서의 대의(大義)’로 ‘서’를 설명했으므로 『주역사전』에서 ‘서’의 의미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역사전』에 ‘서’가 쓰인 곳은 몽(蒙, ䷃)괘의 두 번째 효사(包蒙, 吉, 納婦, 吉, 子克家.)에 대한 해석인데, 다산은 ‘포몽(包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몽괘가 박(剝)괘로 변하는 경우이다. 몽괘는 관(觀)괘로부터 왔는데 추이(推移)하여 몽괘로 되면, 감(坎)의 허물을 손(巽)으로써 감싸주니 이것이 “포몽(包蒙)”, 즉 “몽매함을 포용해주는 것”이다. 몽매하고 어린 때에는 허물(過)이 없을 수 없으나 더러움을 품어주고, 잘못된 곳은 감싸안아, 위에서 ‘용서(容恕)로써 포용하는 것(包恕)이 몽매한 자를 가르치는 도(道)이다.<sup>27)</sup>

다산은 포몽을 설명하면서 ‘서’를 연결시키고 있다. 방인은 ‘포서’를 “용서로써 포용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며 ‘서’를 ‘용서’로 옮겼는데, 다산은 사서에 나오는 ‘서’를 예외없이 ‘추서(推恕)’의 ‘서’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를 바로 앞에 ‘허물(過)’이라는 단어 때문에 ‘용서’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추서’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

‘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미루어 생각한다는 의미의] 추서(推恕)이

이를 다 열거할 수 없다.(執一恕字, 以臨論語中庸大學孟子, 其千言萬語, 無非一恕字之解, 夫子之道, 眞是一恕字而已, 今不能悉數.)”

27) 『周易四箋』, 「蒙卦」〈九二〉, “此蒙之剝也. 卦自觀來. 【五之二】 移之爲蒙, 則坎之眚尤. 【下今坎】 巽以包之, 【上本巽】 是包蒙也. 蒙釋之時, 不能無過. 【坎爲罪】 含垢藏疾, 自上包恕, 訓蒙之道也.”

며, 또 하나는 용서이다. ‘서’는 옛 경서에는 추서의 의미만 있을 뿐, 본래 용서의 의미는 없는데, 주자가 말한 것은 대개 용서에 해당한다.<sup>28)</sup>

추서는 스스로를 닦는 것을 주로 하여 자기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용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주로 하여 다른 사람의 악을 너그럽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어찌 같은 것이겠는가?<sup>29)</sup>

다산은 기존의 ‘서’에 대해 ‘용서’로 이해한 것을 비판하면서 ‘추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이천이나 주자의 ‘추기급인(推己及人)’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친다”는 것으로, 용서를 포함하는 ‘타자 이해’, ‘공감’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그러니까 ‘포서’는 ‘공감의 확장’, ‘타자 이해의 극대화’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앞서 언급된 ‘부부 유별’도 “부부는 타자의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단순히 역할 분배의 차원이 아닌, 상호 존중, 상호 이해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야한다”라는 것이 ‘부부유별’에 대한 ‘추서’적 해석이다. ‘서’에 대한 해석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기독교 윤리 강령에 대한 다산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 V. 나가는 말

다산의 『주역사전』은 유배지에서 처음 완성한 주석서이다. 그러나 그 형태가 상수학에 치중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다산역을 상수역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의리학적 해설을 통해 오히려 다산역에 녹아있는 기독교 윤리적 해석들을 발견하기 더 쉬운 측면도 있다.

이 글에서는 분량상의 제약으로 『주역사전』의 64괘를 모두 다루지는

28) 이광호 외 역, 『대학공의(大學公議)』(서울, 사암, 2016), 225, “恕有二種, 一是推恕, 一是容恕, 其在古經, 止有推恕, 本無容恕, 朱子所言者, 蓋容恕也.”

29) 같은 책, 225, “推恕者, 主於自修, 所以行己之善也, 容恕者, 主於治人, 所以寬人之惡也, 斯豈一樣之物乎.”

않았다. 『주역』 상권에 해당하는 서른 번째 리괘를 범위로 하고, 그중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독교 윤리적 해석이 드러나는 6개의 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다루었다.

나머지 34개의 괘의 해설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적 해석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 『주역사전』 전반에 걸친 다산의 의리적 해석, 윤리적 해석, 기독교적 해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周易』

『周易四箋』

『與猶堂全書』

『小學疾書』

『茶山詩文集』

『國譯與猶堂全書』, 전주: 전주대학교출판부, 1986.

방인 외 역주, 『譯註 周易四箋』, 서울: 소명출판, 2007.

신후담, 김선희 역, 『신후담의 돈와서학변』, 서울: 사람의무늬, 2014.

유영식, 『(책)한목자) 계일의 삶과 선교』, 서울: 진흥, 2013.

이광호 외 역, 『大學公議』, 서울: 사암, 2016.

이정용, 정진홍 역, 『역과 기독교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이지형 역, 『論語古今註』, 서울: 사암, 2010.

정이천, 심의용 역, 『周易』, 파주: 글항아리, 2015.

개역개정성경 <https://www.bskorea.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주역대전DB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2-EAZ-2101>

논문투고일: 2020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08일

---

• 국 문 초 록 •

---

다산은 『주역』을 ‘회과지서(悔過之書)’ 즉, ‘회개의 책’으로 규정했다. 이 논문에서는 ‘회(悔)’라는 『주역』의 점사보다는 다산의 해설 가운데 드러나는 기독교 윤리적 해석들을 다룬다. 가급적 상수학적 해석 방법은 생략하고 기독교 윤리적 해석과 관련된 다산의 해설 위주로 소개할 것이다. 그 범위는 64괘의 첫 번째 건괘부터 30번째 리(離)괘까지 해당하고, 그중 여섯 개의 괘를 중심으로 살핀다. 2장에서는 기독교윤리의 정초가 되는 신(神) 의식과 관련하여 동인(同人)괘와 송(訟)괘의 해석에 나타난 다산의 ‘상제(上帝)’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다룬다. 3장에서는 겸(謙)괘와 림(臨)괘를 해석을 통해 기독교윤리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육신을 다룬다. 4장에서는 비(比)괘와 몽(蒙)괘의 해석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실천 윤리를 다룬다.

**주제어:** 다산 정약용, 주역사전(周易四箋), 상제(上帝), 겸손, 추서(推恕), 공감

---